

똑똑씨

직업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나이 : 1972년생
신장 : 182cm, 체중 : 65kg
외모 : 매우 스마트해 보이나,
어딘가 모르게 어설피름.
성격 : 무척 수줍음을 많이 타나
이상형의 여성을 보면
집념의 사나이로 변신
특기 : 주체할 수 없는 박학다식
슬로건 : 총각탈출



농담

글 _ 김희정 · KISTI 대외협력과 · khj@kisti.re.kr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본 똑똑씨, 탤런트 원빈과 상당부분 흡사한 외모라는 착각에 기분이 좋아진다. 볼도 통통해지고, 뺨만 앙상하던 손목에도 약간의 '살덩이' 들이 잡힌다. 이 모든 것이 미모양에게 '반말'을 하기 시작한 뒤부터 생긴 현상이다. 말을 놓자 긴장도 눈 녹듯 사라지고, 은근한 스किन십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결정적으로 미모양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배를 벽벽 긁은 다음 손톱의 때를 뺄 수 있을 만큼의 강력 철탄내공이 쌓이게 된 것이었다.

'오 놀라워라, 위대한 반말의 힘이야!'



연구실적 급성장, 근무평점 A, 동료들 사이에서도 '쫄잔맨'에서 '호탕경쾌맨'으로 이미지를 급선회 하는 등 요즘 똑똑씨의 하루는 매일 매일이 행복한 여유만만으로 가득하다. 반말과 함께 '미모는 내 여자다'라는 생각이 뇌를 지배한 이후 생긴, 이른바 '반말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다.

그때 울리는 미모양의 전화. 똑똑씨, 예전 같으면 0.001초 이내에 전화를 낚아챘을 것이나 이제 구렁이 담 넘듯 손동작이 느리다. 거기다 너무나도 거만한 목소리까지.



"어, 나야... 바쁘지 그럼... 또 어딜 가자구? 미모, 이제 그만 자기 개발에 힘써야 할 때 아닌가?"

"똑똑씨 정말 너무나 거 아녜요? 똑똑씨 땀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어."

"어허라.. 우리 미모는 감기 안 걸려서 좋겠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억반응에 관여하는 'T세포'가 늘어나서 독감 바이러스를 잘 기억해냈다가 다시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 쉽게 격퇴를 시켜 주거든. 아차, 어쩐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억력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부분이 손상돼서 머리가 나빠지는데... 이거 참. 스트레스 줄까요? 말까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미모양. 전화를 툭 끊고 코뿔소처럼 씩씩거린다. 그토록 달콤하던 똑똑씨의 방대한 과학상식들이 이토록 숫구치는 짜증을 불러일으킬 줄이야.

황망히 전화를 끊은 똑똑씨.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 상황을 수습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놈에 '반말효과'는 사과를 하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야 하는 명백 자명한 사실을 뇌 속에만 가둬놓고, 행동으로 실천할 맘 따위는 싸그리 없애버리는 신비한 힘이 있었다. '저러다 말겠지' 싶은 생각에 똑똑씨, 금세 컴퓨터로 시선을 돌려버린다.

다음날, 어렵사리 화해를 하고, 두 사람 스케이트장에서 만나기로 한다. 어쨌거나 미모양에 대한 애끓는 사랑은 변함없는 똑똑씨, 즐거운 마음으로 미모양을 기다리려 했으나... 5분, 10분, 15분이 지나면서, 구렁이 담 넘듯 애정은 짜증으로 넘어가 버린다. 그러나 20분이나 늦은 미모양의 얼굴엔 전혀 미안함이 없다.

“어머 똑똑씨 먼저 와 있었네? 그래도 나 기다리는 건 행복하다고 했으니까, 괜찮죠? 호호호”

똑똑씨, ‘짜나이다움’을 지키기 위해 꾸역꾸역 올라오는 잔소리를 억지로 밀어 넣어봤으나, 끝까지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비아냥거림에 그만 쓰러지고 만다.



“어... 그렇지 뭐. 근데 이젠 또 뭐야. 가방 새로 샀어? 명품 같네. 얼마나? 팔에 감어? 구짜? 뭘 샀는데?”
 “그냥... 뭐”
 “아하 짝퉁이구나. 그래 지금 짝퉁 많이 사 놔. 이제 위조방지용 나노섬유가 등장하면 짝퉁의 시대도 끝장이거덩. 세포보다도 작은 수십 나노(1나노미터-

터-십억분의 1미터)의 섬유를 명품 옷이나 가방, 중요한 서류 같은 곳에 심어 둔 다음에 특수장치를 이용해 읽으면 짝퉁은 발붙일 곳이 없어지지. 거기다 나노섬유는 대량 제작하는 것도 꽤 쉬운 편이라서 금방 대중화될 것이고, 그러다보면 머지않아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의 위조는 당근이고 미모가 너무도 사랑하는 짝퉁도 끝장이라는 거야. 하하하. 어때 미모, 짝퉁의 시대가 사라지는 게 두려운가?”

여기까지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두 사람, 서로 냉랭한 가운데 거리를 두고 스케이트를 탄다. 그런데 똑똑씨, 오늘따라 자꾸만 솟아나는 심술을 참아내기가 힘들다. 하여간 심술 나 죽을 지경이다.

똑똑씨, 갑자기 미모양에게 다가가 매우 사랑스런 손길로 살며시 미모의 얼굴을 감싸 안는다. 똑똑씨의 갑작스런 돌발행동에 미모양, 기분 나쁜 것도 잊고 얼음판 위의 낭만적인 그 무언가를 은근히 기대하며 사알짝 눈을 감는다. 그러나 똑똑씨의 입에서 터져 나온 말이란.

“미모... 요즘 얼굴뼈가 많이 줄어들었나봐? 보통 주름살은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처져서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더 큰 이유는 얼굴뼈가 축소되기 때문이거든.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 키가 줄었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 나이가 들면 키만 작아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뼈 용적이 줄어들어, 주름살도 얼굴뼈가 축소되면서 생긴 빈 공간 때문에 주위의 피부조직이 느슨하게 처져서 생기는 거라구. 우리 미모 이거 이거... 얼굴뼈 줄어들어 큰일인데? 보톡스라도 한 데...”

똑똑씨의 알미운 박학다식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진 미모. 드디어 폭발하고 만다.




“똑똑씨!! 나한테 어쩔 이럴 수 있어요!!”

미모양, 지나친 분노로 인해 더 이상 말조차 잊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다 획 돌아서 스케이트장을 나가 버린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똑똑씨, 미모양을 따라 짹짹 달려보나, 서툰 스케이트 실력 탓에 그만 엉덩방아를 찧고 만다. 바닥에 넘어진 채 멍하게 앞을 바라보던

똑똑씨의 머릿속에 문득, 체코출신의 대 문호 밀란쿠테라의 ‘농담’이란 책이 떠오른다.
 ‘농담이었는데. 그냥 농담이었을 뿐인데. 그래... 그 책에 나온 주인공도 농담 한 마디 땀에 인생이 확 꼬여 버렸다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농담’은 인생최대의 적임에 틀림없어. 그래도 그 사람은 여자친구가 자기 없이도 잘 지내는 게 배 아파서 농담을 한 거라고 쳐. 난 뭐야. 매일아침 눈 뜰 때, 좋은 풍경 볼 때, 맛있는 음식 먹을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녀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한거냐구!!’

같은 시간, 미모양 역시 굵은 눈물을 똑똑 흘리며 추운 거리를 걷는다.

‘그의 똑똑함이 좋았어. 외로울 때, 힘들 때마다 혼돈스러운 내 생각을 정리해주고, 따스하게 감싸 안아줬었는데. 근데 이제 그의 말들이, 그의 존재가 내 가슴을 찢는 화살이 됐어. 마음이 너무나 아파. 이제... 어쩌면 좋지?’

살갓을 도려낼 듯한 추운 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쓸고 지나간다. 

〈똑똑씨의 박학다식은 다음 호에도 계속됩니다.〉